

2024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염색기공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마치고

정재우 학술수석이사 (승실대학교)

2024년도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염색기공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총 379편(기조강연 1편,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1편, 신진학술상 수상기념강연 1편, 기기분석 강좌 1편, 초청강연 28편, 우수구두발표 16편, 일반구두발표 22편, 우수포스터 22편, 포스터 28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83개 기관에서 총 557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정상급 학술대회로 발돋움한 한국섬유공학회는 섬유뿐만 아니라 유기/무기/복합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내용을 선보였고 회원간의 끈끈한 친목의 장도 잘 마련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했던 학술대회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1일 차에서는 부산대 정범진 교수님의 유기소재의 구조해석을 위한 유전체 분광분석 기초 세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 속에 유기소재에 대한 새로운 구조 해석 기법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차에는 한국섬유공학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영 박사님이 선출되었고 24년 사업비 결산과 차년도 사업예산 및 임원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계학회상 시상식도 거행되었는데 제24회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다이텍연구원의 심지현 단장님(한국섬유공학회지)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민호 박사님(Fibers and Polymers)이 선정되었습니다. 제18회 신진학술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윤기로 수석연구원님과 한양대학교 위정재 교수님이 수상하게 되었고, 제9회 Innovation Awards는 (주)효성기술원 김무송 수석연구원님, 부성티에프시 김기웅 상무님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금번 추계학회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내 섬유공학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후원해주신 기업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기총회 후에는 제36대 한국섬유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이준영 교수님의 기조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Electrically conducting polymer and fiber materials”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셨고, 평생을 몸 바쳐 연구해오신 전도성 고분자 기술 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 내용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며 30년 넘게 본인이 경험한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조강연을 듣는 많은 청중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기조강연 후에는 경북대 김태경 교수님께서 “유기 컬러재료 연구에서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술상수상기념 강연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부터 강연을 해주셨고, 그를 통해 이론 놀라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시어 많은 이들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번 학회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많은 이들이 숨죽여 보았던 강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조강연 후 고성능산업소재, 생물자원 및 지속가능소재, 섬유고분자재료·공정 기능화, 나노하이브리드 및 복합소재, 탄소복합소재, 중견연구자, 신진연구자 세션이 열렸고 초청된 연사분들을 통해 관련 분야 최첨단 소재 기술에 대한 초청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두발표 이후 포스터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

서는 우수포스터발표 경진대회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회원들이 포스터 발표장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연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수포스터 발표 경진대회는 김지영(경북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곽현중(UNIST), 권내연(경북대), 김가람(전남대), 원성욱(서울대), 장승연(전북대), 전은수(단국대) 학생들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일차 마지막은 벅스코 지하의 더파티에서 간담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14분의 신입회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학술대회에서도 꼭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차는 전남대 이두진 교수님의 신진학술상수상 기념 강연으로 학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섬유방사 및 코팅 공정에서의 유변학 활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주셨고, 섬유뿐만 아니라 전자재료에서 유변학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신진학술상수상 기념 강연 후에는 바이오메디컬융합소재, 차세대전자재료 및 미래에너지, 친환경소재 등 다양한 세션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고, 우수구두발표 경진대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정규(서울대) 학생이 최우수상을, 김동균(단국대), 김선유(건국대), 김용준(숭실대), 김찬영(서울대), 원태경(한양대)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유공학회의 미래후속학문세대인 학생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회와 함께 지속가능소재 분과가 주관한 제1회 신기술포럼이 함께 개최가 되었는데, 최근 섬유·고분자 산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섬유·고분자 리사이클 기술과 물질 순환공정”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호익 박사, 숭실대학교 김병효 교수,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 롯데케미칼 홍성민 수석, SK 케미칼의 윤원재 상무님을 연사로 모시고 섬유·고분자 리사이클 원리와 기술, 활성화 방안 및 전략, 산업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신기술 포럼에는 섬유연구소 협의회 뿐만 아니라 약 150명의 많은 인원들이 등록을 하였는데, 준비된 강연장에 회원들이 가득 메워짐은 물론이거니와 매우 진지하고 집중도 높은 포럼이 이루어져 섬유·고분자 리사이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 후에는 수고해 주신 연사분들과 지속가능소재 분과 회원들간의 식사자리가 마련되어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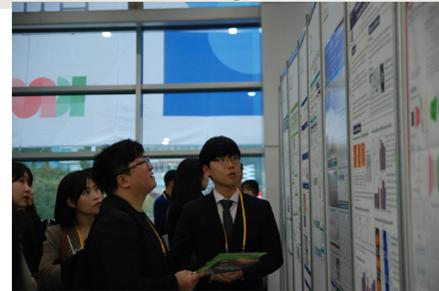
앞으로도 한국섬유공학회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섬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학회가 그 중심축이 되길 바라며 금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학회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과 사무국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연말입니다. 학회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2025 추계섬유공학회에서 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포스터 발표장, KFS 신입회원 소개



제1회 KFS 신기술 포럼